시간제보육 사업 추진 현황

김의향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장

최근 맞벌이가구 증가,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다양한 유형의 양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육아지원 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가정 내 양육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의 시급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주요내용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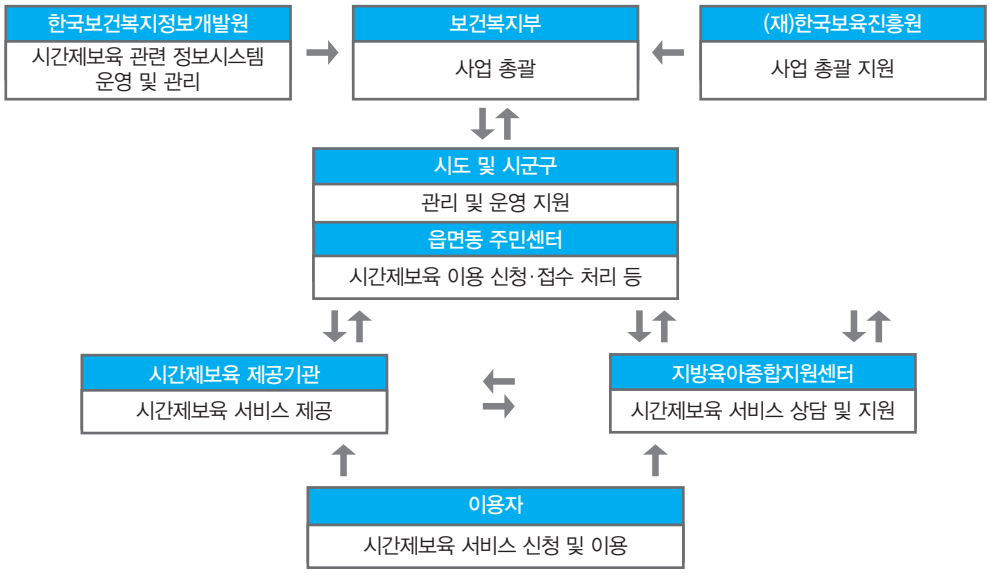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지향하며 140대 국정과제[1]를 제시하였다. 그 중 아동 분야는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 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을 실천과제로 수립하였다.

이는 최근 맞벌이가구 증가,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다양한 유형의 양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육아지원 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가정 내 양육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근로유형 다양화, 맞벌이부부 증가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가정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 등 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시간제보육서비스[2]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법적 근거[3]의 마련과 운영체계 개발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인

1) 관련 국정과제는 '63-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일시보육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임.
2) 2013년 '일시보육'에서 2014년 '시간제보육'으로 확대개편 변경됨.
3)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본조신설 2013.6.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본조신설 2013.12.5.]



[그림 1]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도

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시간제보육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4)]

2014년 현재 2015년도 본 사업 시행에 앞서 1차 시범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녀양육의 다양한 선택권 제공 및 사업모델 정교화를 위한 제2차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본고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책 추진 현황

가. 2013년 1차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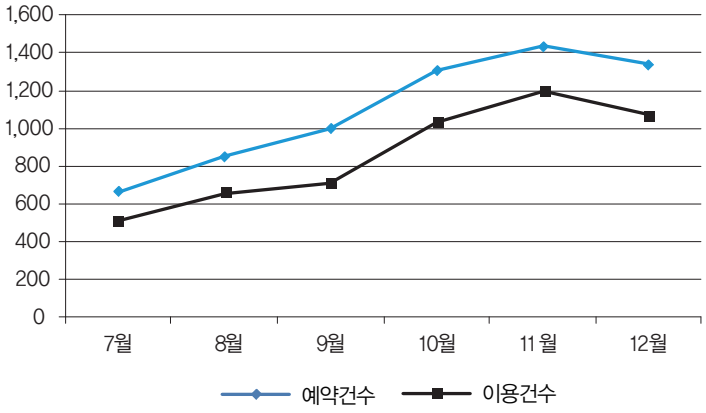
〈표 1〉 1차 일시보육 시범사업 개요

사업 예산	참여 시·도, 시·군·구 및 제공기관[1)] 수	이용대상 연령 (양육수당 수급자)
총 76억원 (국비 38억, 지방비 38억)	4개 시·도, 8개 시·군·구, 15개 서비스 제공기관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월 최대 40시간 지원)

주: 1) 시·군·구에서 선정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당됨.

4) (재)한국보육진흥원은 1차, 2차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음.

지원하고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김으로써 가정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3년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표 1 참조).



[그림 2]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 및 예약 실적

1) 일시보육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는 일시보육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자 및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모형개발, 시간제보육 예약·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 주요 성과

1차 일시보육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일시보육을 위해 개발된 운영체계 모형과 인프라를 소수 제공기관에 시범적용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효과분석 결과 일시보육의 필요성 증가, 이용실적의 꾸준한 증가, 부모 만족도 제고와 기대수준 향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시보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일시보육 이용실적

일시보육 이용실적은 서비스 시작 후, 증가하는 추세로, 동 추세는 '14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 참조).

나) 필요성

일시보육의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38.4%에서 2013년 41.8%로 증가하였다.특히, 2014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시보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일시보육 이용 부모 중 시간제일자리 근무자 비율은 26%에 달한다.

〈표 2〉 일시보육서비스 목적에 대한 효과 기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원장	교사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계(수)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저출산 해소	8.0	20.7	23.3	31.3	16.7	100.0(150)	3.28	2.90	2.80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4.7	10.0	16.7	41.3	27.3	100.0(150)	3.77	4.18	4.07
기관 미이용 부모 지원	2.0	6.0	12.0	44.7	35.3	100.0(150)	4.05	4.33	4.73

주: 2013년도에 한국보육진흥원이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일시보육 성과를 조사한 자료임.

다) 일시보육 부모만족도

일시보육을 이용한 부모는 이 서비스 제공이 ▲기관 미이용 부모(가정양육부모) 지원,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저출산 해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표 2 참조).

나. 2014년 2차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추진 내용

2차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제1차 시범사업의 추진 목표를 유지하되, 제1차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합리화, ▲홍보 강화를 통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기존 시범사업을 확대·재개편하였다.

전업주부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의 일시보육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시간선택제 근로자,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기적인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수요자를 위해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기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위한 유연한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차 시범사업의 특징

2차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제보육의 주요 대상을 전업주부와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정기적·단시간 보육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맞벌이 가구, 한부모 등으로 확대하여,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이 결합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13년 15개소 ⇒ '14년 약 98개소) 지정하여 수

〈표 3〉 2차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개요

(기준일: 2014. 8. 11.)

사업 예산	참여 시·도, 시·군·구 및 제공기관[1] 수	이용대상 연령 (양육수당 수급자)
총 76억원 (국비 38억, 지방비 38억)	17개 시·도, 75개 시·군·구, 98개 제공기관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주: 1) 시·군·구에서 선정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당됨.

〈표 4〉 유형별 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시간제 보육반	
	기본형	맞벌이형
주요 이용 대상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전업주부 -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에게 기본형 바우처를 자동 지급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 맞벌이형 바우처를 지급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 월 40시간 - 4천원/h 중 2천원 자부담 (정부지원 50%+본인부담 50%)	- 월 80시간 - 4천원/h 중 1천원 자부담 (정부지원 75%+본인부담 25%)

요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양육수당 수급자라면 누구나 쉽게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한다(표 4 참조).

2) 주요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사업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홍보를 강화함으로써(표 5 참조) 시간제보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표 5〉 홍보 방법 및 내용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및 SNS 홍보	언론 홍보
- 리플릿 - 포스터 제작 및 보급 - 현판 제작 및 현판 수여 - 대중교통 광고 - 육아박람회 참가	- 시간제보육 카카오스토리 계정 운영 - 육아 및 여성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홍보 - e비전보육(한국보육진흥원 블로그)	- KBS 1TV, YTN, TBS, 육아방송, KNN 등

또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시간제보육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3) 이용 현황

2014년 현재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및 실이용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제공기관이 늘어날수록 이용률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나가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

획('14~'18)」을 수립하여 보도자료[5]를 배포했다. 이번에 확정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장기적으로 종일제 중심의 무상보육을 보완하면서 전업주부, 시간선택제 근로자, 맞벌이 가구, 한부모 등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제보육반이 본격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기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위한 유연한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6]에 따르면 현재 70개 제공기관을 금년 하반기에는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2015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 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8. 5.). 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수립.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7. 14.).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